

당신만 몰랐던 북한인권 이야기

이민혜

최혜성

김성근

김권능

김소희

당신만 몰랐던
북한인권 이야기

북한인권 이야기



들어가는 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일어난 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한 사건도, 북한 정권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되는 불법적 인권 유린도, 20만 이상이 평생 수감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도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경험했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들의 증언록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끔찍 숨겨왔던 상처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만난 후에야 자유해진 그들이 털어놓은 참혹한 경험들입니다. 매일 매일을 이런 상처 속에 살고 있을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열방빛선교회 유튜브 채널 '내래TV'에서 더 많은 간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세 소녀가 경험한 인신매매 현장 이야기

오빠가 보위부에 잡혔다. 오빠의 돈으로 채우던 쌀독은 곧 비게 될 것이다. 가끔 먹었던 물에 텅텅 불은 옥수수 국수도 다시 못 먹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나서야 했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차례가 되었다. 아버지는 술로 어머니는 눈물로 절망적인 가난을 버티고 있었다. 동생은 마음이 아팠고, 오빠는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떻게?

내 나이 16살, 추운 겨울날 친구와 함께 중국에 가기로

했다. 중국에 우리를 양팔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말이 없었다. 브로커, 나, 그리고 키가 큰 언니 한 명.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붙잡혔을 때 서로의 이름을 대지 않도록 말이다. 국경을 지났을 때 중국인 아저씨 2명이 우리를 맞아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차를 탔다. 이제 곧 나를 양팔로 삼아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오빠도 구하고 우리 가족도 구할 수 있으리라.

한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북한에서 입고 온 거지 같은 옷을 벗었다. 새 옷은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자 남자들이 들어왔다. 브로커와 아저씨들이었다. 그들 중 한 아저씨가 언니를 붙잡고 애써 갈아입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언니도 표정이 없었다. 언니의 옷을 벗긴 아저씨는 자기도 바지를 벗었다. 북한을 넘어올 때부터 애써 무시했던 불안감으로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다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질렀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내 옷을 벗기려는 남자를 죽을 힘을 다해 깨물었다. 새 옷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고 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무표정한 언니가 말했다.

“너 살고 싶으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나는 화가 나 소리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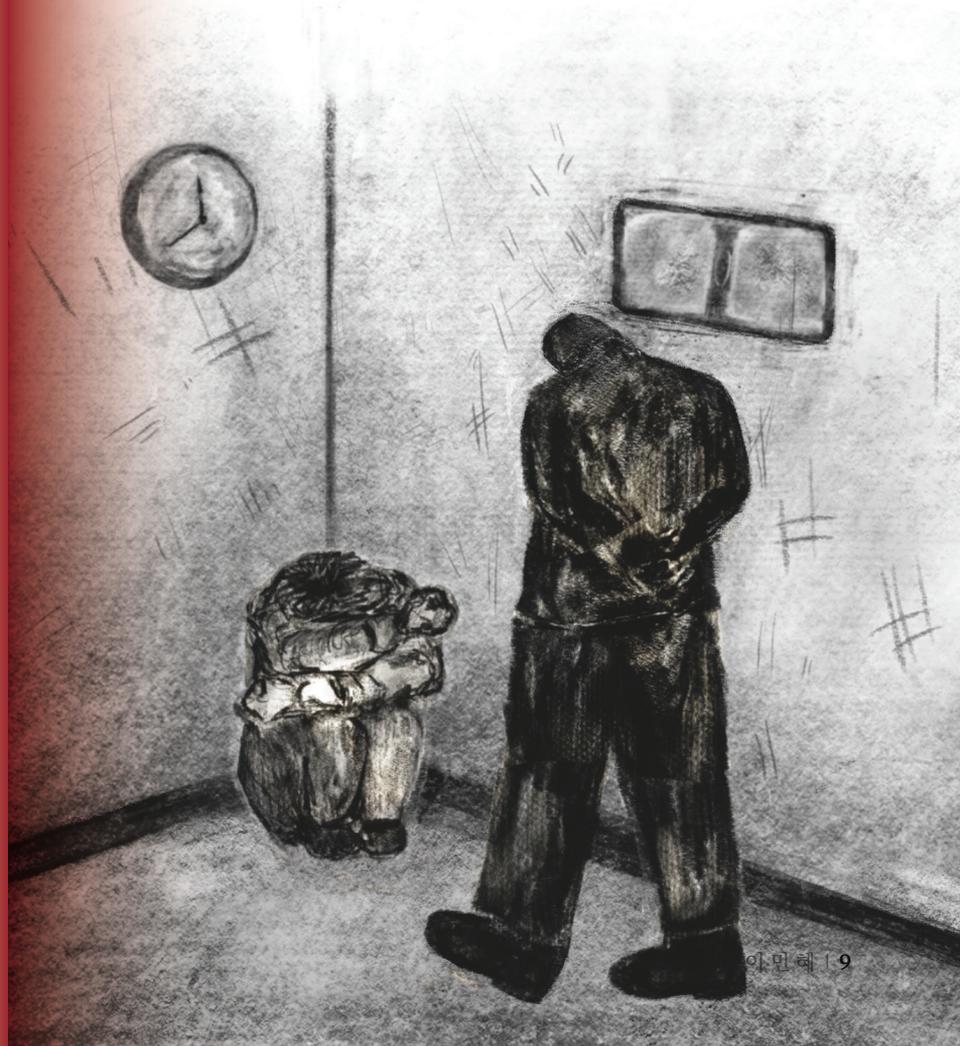
“너나 시키는 대로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하는 어른들이나 다들 반쯤 어디에 홀린 것이 아닐까.

하룻밤이 지났다.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다. 다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행동했다. 나도 그랬다. 다른 브로커를 만났고 나는 그들에게 넘겨졌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찾았다. 아저씨들은 아줌마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내가 어딴는지 물었다, 아줌마는 나를 싱크대 밑에 숨겨 주었다. 주위에 사람은 있었지만 지금 들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걸 알았기에 입으로 손을 막고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모른 채 살려달라고 빌었다. 다행히 아저씨들은 곧 떠났다. 아줌마에게 고맙다고 했다. 아줌마는 웃는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너는 농사짓는 게 좋니,
아니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좋니?”

나는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팔려가고 있었다.



감옥에서 처음 기독교인을 만난 여죄수 이야기

나는 탈북한 후 중국에서 살다가 공안에 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다. 복송되는 것을 피하고자 뇌물로 수용소장을 구워삶는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공안이 들어와 새수감자가 북경에서 잡혀 왔다고 보고했다. 소장은 내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시간이 없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

짜증이 났다. 얼마 후 감방문이 열리고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이상한 점은 복송되기 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안함이 그 여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옷은 칙칙하고 어두웠지만, 눈은 고요하게 빛났다.

그 여자에게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신비로운 사람 같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내가 잡혀 올 때쯤 중국에서는 파룬궁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것이 기억나 파룬궁 수련자인가 물어봤다. 중국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대답이 들려왔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소름이 끼쳤다. 복송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와 연관이 되면 안 된다. 심지어 같은 탈북민이다. 복송 후 심문당할 때 저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더 많은 고초를 당한다. 하필 이 순간에 저 액운 덩어리를 만날 건 무엇일까. 난 화가 나 그녀를 제일 찬 감방 구석으로 내쫓아버렸다.

어느 날, 같은 감방을 쓰는 한 죄수가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 손에서 빛무리 같은 뭔가가 나오는 듯했다. 그리고 쓰러졌던 수감자가 다시 일어났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연이라 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기도 한 번에 일어났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뭔데 기적을 베푸느냐?”

그 여자가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때 난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복송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죽을 거 같은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그녀는 액운이 아니라 행운이었다.

나는 감방 안에서 최고참이었기에,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영접 기도를 받게 했다.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든 했다.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다. 그저 ‘아멘’ 만 하라는 그녀의 말을 열심히 따랐다.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예수의 이름으

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란 문장만 기억이 난다.

그날 밤은 뜬눈으로 지새웠다.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그날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지붕이나 문이 열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올 줄 알았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녀를 내 옆에 두었다. 제일 먼저 그녀가 탈출하면 그다음 차례는 내가 될 테니. 그녀가 코를 골며 잘 때 마다 깨웠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되니까. 물론 지붕은 열리지 않았고 예수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다음 날, 나와 그녀는 같은 포승줄에 묶여 복송되었다. 거짓말을 한 그녀가 미워졌다.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도 하필 또 그녀와 같은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 감옥에서도 그녀는 평온했다. 그녀는 매일 오전 오후 저녁 심문을 받았다. 우리 감방에는 중국에서 영접기도를 한 사람이 나 포함해서 5명이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심문 받는 이유가 누군가 고자질을 해서 그런 거라면 나도 그 주동자 격이기 때문에 걱정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다.

감옥에 온 지 6,7일쯤 지났을 때 간수 한 명이 와서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집안이 인텔리 집안이고 수령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수령님을 배반하고 예수쟁이가 되었느냐. 네가 받은 사랑이 기억나지도 않느냐.”

심장이 떨어졌다. 그녀가 예수쟁이인 게 들켰다.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 광채가 났다. 그녀의 비쩍 마른 몸매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맞습니다, 수령님은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으나 그 소리는 한낱 탈북자 여인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리 위로 폭포수 같은 무언가가 쏟아져 내 심장에 닿았다. 심장에 껌질이 벗겨지는 느낌을 설명할 수 있을까. 딱딱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 이후 그녀는 내가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기 3일 전 나에게 말했다.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지켜주세요’라고만 기도해.”

그녀의 말대로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것을 마

지막으로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가 가르쳐 준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는 내가 한국에 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그녀의 평안한 모습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 거지들 이야기

밀 2kg이 우리 집 남은 식량의 전부였다. 우리 가족은 천천히 굶주림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었다. 야위어 가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일해서 돈을 벌어도 식량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성했지만, 쓸모가 없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갖다 팔아버린 지 오래고, 마치 메뚜기떼가 지나간 것처럼 주위에는 뜯어먹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다.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었다.

누나 중 두 명이 굶어 죽었다. 집에 남은 식구는 나와 부모님뿐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중국에는 먹을 것이 많다. 너는 중국에 가라.”

하나 남은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 먹을 입이 하나 줄면 그나마 나을 것이고, 나는 젊으니 중국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1997년 1월 저녁, 청진역에 나섰다. 탈북한다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길이다. 어렸을 적부터 새겨진 충성심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시는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뼈마디를 쭈셔왔다. 전철역에 도착하니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발 디딜 틈 없이 누워 자는 꽃제비들(어린 부랑자들)이 보였다. 열차 시간표를 보려면 누워있는 아이들 사이로 걸어야 했다. 가끔 발로 밟아도 미동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깊이 잠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다.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로의 체온을 온기 삼아 잠든 아이들도, 그 위를 걷는 승객들도 누가 죽고 살았는지 신경을 쓰지 않으니 모른다. 모든 죽음을 애도하기에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바로 앞의 누워 잠

든 아이의 입에서 들숨과 날숨 사이로 거품이 나왔다 들어 갔다를 반복했다. 한 5살 정도로 보였다. 옆에 앉아있는 노인이 말했다.

“마지막 숨을 쉬는구나.”



마지막 숨은 저런 거였구나 싶었다. 내 옷 주머니에 빵 5개가 만져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저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면 다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빵 5개는 내 전부였다. 중국에 가기까지 나를 살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아이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옆의 노인도, 역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이 잠잠히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사람이 아니었다.

새벽이 되어 기차를 탔다. 움직이는 차장 사이로 죽은 아이들을 거둬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공무원들의 손에 거품을 내뿜던 아이가 실려 가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본 내 조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남한행 탈북 루트를 개척하다 붙잡힌 탈북자 이야기

2001년 7월 26일 중국 구치소에서, 북한 보위부 구류장으로 복송되었다. 나는 일반 탈북민이 아니다. 저들에게 나는 악질 중의 악질이다. 단순히 한국으로 탈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탈주 루트를 찾았고 수많은 동포를 한국으로 인도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조직 탈북민 사역에서 중책을 맡았었다. 북한 보위부가 탈북민에 대한 정보망이 정확하다면, 내가 누구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나와 아내 그리고 8개월 된 내 아이는 절대로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본래 나는 먹고살기 위해 탈북한 평범한 청년이었다. 고단한 타지의 삶을 김씨 일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한 선교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통독반이란 선교 사역을 돕고 리더로 세워져 열심히 사역했다.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태어났다. 아픔과 과거를 씻어버리는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끝나지 않겠다는 희망을 품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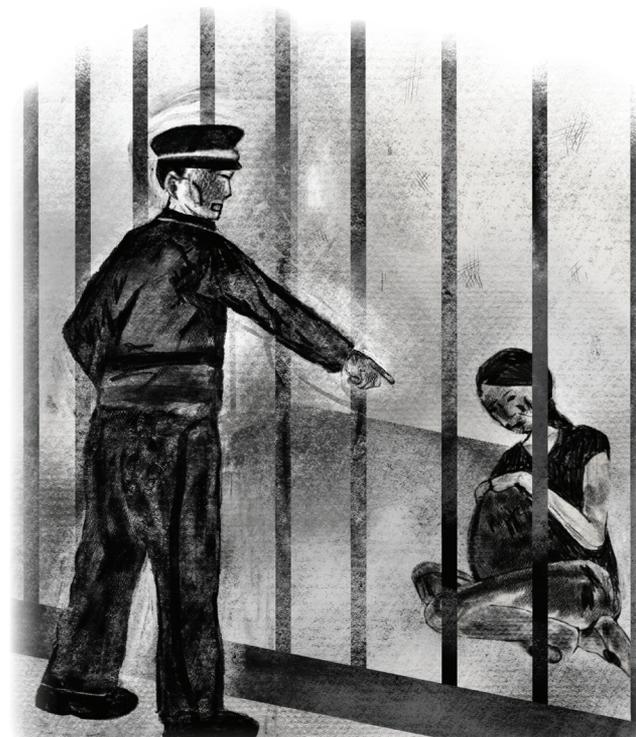
새로운 탈북민들을 리더로 키워 보내고 또 다른 탈북민들을 모집하는 중에 리더들이 보위부에 잡혔다. 저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될까. 북한에 예수의 피를 흘리자던 동료와 동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역보다는 저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저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에 더 마음에 쏠리던 어느 날 나는 사역을 그만두었다.

연변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우연찮게 탈북민을 한국으로 보내는 선교사를 만나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탈북

민들은 항상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안에 쫓기고, 보위부의 은밀한 추격에 위협을 당하며,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서 언제 고발을 당할지 신경을 곤두선 채 살아야 한다.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들도 이 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은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죽겠다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한국행 탈주다.

많은 사람을 보냈고 이제는 내가 갈 차례였다. 아내는 임신 7개월 차였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었지만, 그때 이 아이만큼은 북한의 아이로서, 중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정정당당하게 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 국경을 넘어가기도 전에 공안에 붙잡혔다. 후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와 합류해서 몽골로 가려 했던 5명의 탈북민은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몽골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인도자 없는 무리는 많이 헤맸고 물과 식량이 없는 행군을 아이는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죽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과거의 행적을 보위부는 파악 못 했다. 보위부 구류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배가 많이 불러있었다. 아내와 아기가 살아있었다. 풀려난 줄 알았지만 우리는 도집결소로 이송되었다. 아내는 낙태를 강요받았다. 한쪽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아이라고 항의했지만. 밖에서 불법으로 만난 우리들의 인연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내를 데려갔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북한 정권에 의해 어둠 속으로 지워져 갔다.



자신의 갓난아이를 납치당한 한 엄마 이야기

첫째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고 둘째 갓난아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이를 업고 친정이 있는 개성으로 향했다.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며칠째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역전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며칠간 객차 안에서 지낼 거라 생각해 친하게 지내던 모녀에게 아이를 맡기고 기저귀를 빨고 돌아와 보니, 그 모녀와 아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주위에 물어봐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몇 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갓난아이를 왜 데려갔을까?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 이때에 먹을 입을 하나 더 데려가서 무얼 할까? 자신들과 상관도 없는 아이를 왜? 기차역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목적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걸음이 빨라졌다. 애써 다른 가능성을 떠올려 봤지만, 닿는 시선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역 주위를 미친 듯이 오가면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아이의 모습을 설명했다. 말을 더듬고 손이 떨렸다. 입이 너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말을 내뱉기 위해서 소리를 쳤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눈물로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말에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역무원마저도 찾으려 알려주겠다는 말뿐, 자



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한 갓난아이의 생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이들이 원망스러웠다. 가난과 굶주림이 사람들이 이리도 서로에게 냉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 역전 지나쳐가는 사람들 사이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 하나 죽 한 그릇, 옷 하나 덮어주지 않았다. 내가 미쳐버리는 걸까? 미친 세상 속 미친 사람들 속에 있으니 나도 미쳐가는 것 같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하늘에 원망을 토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울다가 탈진하고, 잠들고 찾기를 반복하다가 나는 결국 청진역을 나섰다. 지나가는 군인들이 식량을 나눠줬다. 이상한 향신료가 들어있었는지 상했는지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한 입을 먹고는 토를 했다. 그렇다고 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이 준 식량으로 근근이 버티며 친정인 개성으로 향했다.



**LIGHT UNTO
THE NATIONS**